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신념의 비교문화 연구

Parents' Cultural Beliefs about Children's Success in School

이주리*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Ju-Lie Lee*
Dept. of Childwelfare, Chung Ang University

Abstract

Parents' beliefs about what child's qualities are associated with success in school were studied among Korean and Western society communities' parents. Parents from all groups agreed that four domains of a child's characteristics(cognitive qualities, social qualities, negative temperament, and dutifulness) had the major impact on school success,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Parents from all groups indicated that non cognitive qualities were important or more important than cognitive factors. Cultural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way the qualities clustered together and in the emphasis parents placed on specific qualities or domains of qualities.

Key Words : Parents' beliefs, Success in school, Cultural differences

Ⅰ. 서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자녀가 지녀야할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동의 학교성취에 대한 연구는 국가와 미국 내의 민족 간 비교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학교성취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취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을 포함한 많은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동의 성격이나 발달에 대한 부모신념이나 아동의 학습이나 교육에 있어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부모신념이 아동의 학교에서의 성공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Chao, 1996; Chen & Uttal, 1988; Hess et al., 1987; McGillicuddy-De Lisi & Subramanin, 1994; Stevenson & Lee, 1990)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Chao(1996)는 중국계 미국인 어머니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의 아동의 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모신념을 탐색하였다. 이 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은 학습과 아동의 학교 교육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 서로 달랐다.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들은 학습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이며, 학습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반면, 중국계 어머니는 학습과 학교 교육은 많은 노력이 포함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그들은 학습의 과정보다 결과에 더 관심을 두었다.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들은 그 자신의 역할을 아동이 탐색할 수 있는 창조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중국계 미국인 어머니는 아동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역할로 더 직접적인 접근, 또는 개입으로 보았다.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계 미국인 어머니는 학업 성취를 더 강조하는 한편,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는 사회적 기술과 자아 존중감을 강조하였다. 또한, McGillicuddy-DeLisi & Subramanian(1994)은 탄자니아와 미국 어머니들의 아동의 지식 습득에 대한 신념을 연구하였다. 탄자니아의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 모두 생물학적 과정을 아동지식의 발달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탄자니아 어머니들은 학습을 외부 환경으로

* Corresponding author: Ju-Lie Lee
Tel: 02) 820-5730
E-mail: julie@cau.ac.kr

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지식이 이동되는 것으로 더 간주한 반면, 미국 어머니들은 학습을 아동의 적극적인 과정에 의한 것으로 더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미국 어머니들은 아동지식의 발달을 아동 자신의 관찰, 실험, 인지적 조직화로 더 설명하였고, 교육적 지시와 학습과정에서의 강화는 탄자니아 어머니들보다 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을 포함한 환경은 대부분 부모의 문화적 신념체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문화적 신념 체계 또는 부모 문화이론은 아동의 문화적 맥락의 일부분으로써 아동발달과 발달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cGillicuddy-DeLisi, 1985; Super & Harkness, 1986). 따라서 아동의 학교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부모의 양육실제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부모의 신념, 목적, 그리고 기대를 탐색하지 않고선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에 대한 부모신념, 가치, 생각, 목적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과 아동의 학교성취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중재변수이다.

이와같이 아동의 어떠한 특성이 학교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부모신념은 아동의 학교생활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몇몇 연구들 (Hoffman, 1988; Levine, 1988; Pomerleau et al., 1991)은 부모가 자녀에게 발달시키기를 원하는 특성과 가치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신념과 아동의 학교 성취의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Okagaki & Sternberg(1993)는 미국 내의 6개 문화 집단에서 학교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다양한 부모신념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부모들은 자율성과 일치성(conformity)에 대한 강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glo-American과 Mexican-American의 부모는 자율적인 행동에 더 중요성을 두는 반면, 아시아에서 이민 온 부모들은 일치적 행동을 더 강조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지능에 대한 부모의 개념이 문화권 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glo-American 부모들의 지능의 개념화에서는, 문제해결 기술, 언어적 기술, 그리고 창조적 능력을 포함하는 인지 특성이 동기, 사회 기술 등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보다 더 중요시 되었다. 반대로, 다른 다섯 개 문화 집단 부모들의 지능의 개념화에서는 비인지적 특성들이 인지적 특성만큼 중요하거나, 인지적 특성 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아동의 학습과 교육 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갖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서로 다른 특성들을 발달시키길 원한다. 아동의 특성 중 복종심, 독립심 또는 자율성과 같은 특성들은 문화에 따라 부모가 다르게 평가하였다. 타고난 능력을 믿는 부모는 영리함과 지능과 같은 특성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노력을 믿는 부모는 지구력, 집중력과 같은 특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학습을 지식이 환경으로부터 아동으로 흐르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는 부모는 좋은 기억력과 같은 특성을 선호할 수도 있다. 반면, 아동이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믿는 부모는 호기심, 새로운 환경에의 접근, 그리고 열심을 더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다.

자녀의 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한 아동특성에 대한 부모의 문화적 신념연구가 서구 6 개 국가의(호주, 이태리,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 비교문화연구 (Feng, 1999)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아동특성에 대한 부모신념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따라서 서구문화권의 부모신념과 다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한 아동의 특성에 대한 부모신념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관련된 아동 특성에 대한 부모신념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부모신념에서도 서구 6 개국의 부모신념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4 가지 아동 특성 요인 즉, 인지적 특성요인, 사회적 특성 요인, 부정적 기질 요인, 그리고 의무감 요인이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권(서구 6 개국)과 한국 부모신념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패턴(pattern)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개의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문제 1.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믿는 아동의 특성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서구 6개국(호주, 이태리,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아동의 특성들에 대한 부모 신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패턴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송파구 S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아동 180명의 부모 180쌍이다. 그러나 회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분석된 대상수는 부모 284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자녀 수	1 명	16	11.2
	2 명	107	74.8
	3 명	20	14.0
아버지의 연령	20대	3	3.5
	30대	73	50.0
	40대	66	46.5
교육정도	고졸	25	18.3
	전문대졸	19	13.4
	대졸	71	50.0
	대학원졸	26	18.3
직업	생산직	10	7.1
	판매서비스직	21	15.0
	사무직	50	35.7
	반전문기술직	20	14.3
	관리직	18	12.9
	전문직	7	5.0
	기타	14	10.0
어머니의 연령	20대	6	4.2
	30대	117	82.5
	40대	18	12.6
	50대	1	0.7
교육정도	고졸	49	34.5
	전문대졸	22	15.5
	대졸	67	47.2
	대학원이상	4	2.8
취업 유무	있음	76	54.7
	없음	63	45.3
취업 어머니의 주당 작업시간	10시간미만	19	19.7
	10-30시간미만	11	14.5
	30-40시간미만	10	13.2
	40-50시간미만	34	44.7
	50시간이상	6	7.9
월수입	100만원미만	3	2.4
	100-200만원미만	6	4.7
	200-300만원미만	24	18.8
	300-400만원미만	34	26.8
	400-500만원미만	21	16.6
	500만원 이상	39	30.7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자녀수,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이 인구학적 특성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참여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8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6세이며, 평균 자녀수는 2명이었고, 연구참여자의 약 70% 이상이 대학학위를 소지하였으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도 전체의 54.7% 이었다. 취업한 경우, 어머니가 가정 밖에서 일하는 주당 평균시간은 32시간이었으며 편차가 16시간으로 컸다.

또한, 우리나라와 서구국가들과의 결과비교를 위하여 1999년 서구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자료(Feng, 1999)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서구자료는 7-8세 자녀를 둔 부모로 호주 49명, 이태리 120명, 네델란드 134명, 스페인 125명, 스웨덴 108명, 미국 120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0대이며(어머니 평균연령; 호주 34.5, 이태리 36.5, 네델란드 35.9, 스페인 34.3, 스웨덴 36.6, 미국 37.4, 아버지 평

균연령; 호주 35.4, 이태리 38.8, 네델란드 38.3, 스페인 36.0, 스웨덴 39.4, 미국 39.1)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 교육수준은 이태리와 미국은 부모 모두 대학 졸업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부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또한 평균 자녀 수는 모든 국가에서 2명이었다.

2. 측정도구

"아동의 어떤 종류의 특성이 학교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인데, 질문지는 아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41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문항들은 자녀의 기질과 학교에서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술에 대한 비교문화연구를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질문지는 Chess & Thomas (1996)에 의해 정의된 아동기질의 아홉 개 차원(활동성수준, 규칙성, 접근 및 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반응역치, 기분, 주의산만성, 지구력)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성, 인지적 특성, 그리고 다른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서구 6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토론하여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와 아동의 학교에서의 성공을 기술할 때 자주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41개의 문항은 7점Likert 척도이며, 1점은 학교에서의 실패와 가장 강하게 연관되며, 7점은 학교에서의 성공과 가장 강하게 상관되고, 4점은 아동의 학교에서의 성공과 실패 어느 쪽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7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절차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를 선정한 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연구자가 접촉한다. 그리고 교사들을 통해 부모들이 접촉되었다. 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한 후 부모에게도 교사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잘 설명했다. 부모에게 질문지를 수행하게 하며 모든 문항에 다 평정하여 완성하도록 격려하였다. 한편, 부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질문지 수합을 위해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집하였다.

4. 분석 및 통계적 해석

연구목적에서 제안한 2 개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믿는 아동의 특성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한국과 서구 6개국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아동의 특성들에 대한 부모 신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패턴을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믿는 아동의 특성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여부에 필요하다고 믿는 아동의 특성 41문항 각각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2>.

<표 2>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각 문항은 최소 1점, 최고 7점인데, 5점 이상을 받은 문항들은 "잘 집중하는", "의지가 강한", "적극적인", "자신감", "지도력" 등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잘 집중하는", "의지가 강한", "적극적인", "자신감", "지도력" 등의 아동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서구 부모들은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해 5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6점 이상 평가한 아동의 특성으로는 "행복한", "열정적인", "사교적인", "새로운 상황에 잘 접근하는"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잘 집중하는", "기억력", "호기심" 같은 인지적 특성을, "자신감", "정직한", "협동적인", "책임감" 같은 사회적 의무를 학교생활 성공에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나라 부모의 아동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항의 평가는 평균점인 4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각 문항별 표준편차는 서구국가들보다 대부분 크다. 반면 서구국가들의 부모들은 전체적인 문항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개인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생각에 동조하는 성향으로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평균점인 4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개인주의 성향의 서구문화의 부모는 각 문항별로 특성이 다른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모보다 더 차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각 문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편차가 크므로 서구부모보다 우리나라 부모의 생각의 개인차가 많다고 하겠다.

〈표 2〉 각 문항에 대한 국가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Korea		Australia		Italy		Netherlands		Spain		Sweden		U.S.A.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행복한	4.24	2.14	6.88	0.33	6.47	0.66	5.41	1.05	6.51	0.88	5.88	1.02	6.22	0.77
열정적인	4.71	1.99	6.49	0.54	6.13	0.93	6.21	0.87	6.46	0.82	6.17	1.09	6.24	0.78
사교적인	4.59	2.15	6.16	0.66	6.31	0.74	5.46	1.18	6.43	0.77	5.61	1.06	5.56	0.95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4.32	1.85	5.73	0.81	5.69	0.99	5.12	1.11	5.90	1.26	5.69	1.18	5.41	0.94
겸손한	4.29	1.78	4.67	0.99	4.62	1.22	3.92	0.98	4.34	1.03	3.80	1.26	4.72	0.90
조용한	3.89	1.47	5.45	1.12	5.08	1.05	4.80	1.10	5.19	1.39	5.21	0.99	5.39	0.96
잘 집중하는	5.05	2.20	6.51	0.54	6.68	0.69	6.46	0.89	6.59	0.67	6.70	0.65	6.44	0.81
침착한	4.74	1.91	5.32	1.16	5.04	1.08	5.73	1.06	3.59	1.94	5.30	0.87	5.41	0.86
빨리 이해하는	4.94	2.18	5.84	0.96	6.28	0.91	6.14	1.06	6.56	0.69	6.19	0.84	5.87	0.91
주의를 기울이는	4.82	2.10	6.41	0.88	6.59	0.70	6.20	0.91	6.73	0.54	6.38	1.02	6.42	0.87
독립적인	4.51	1.77	5.96	0.89	6.01	1.00	6.05	0.91	4.54	1.79	5.94	1.12	5.57	1.08
신중한	4.71	1.73	4.30	1.45	4.48	1.05	3.47	1.26	5.46	1.33	3.69	1.26	4.28	1.15
말을 잘하는	4.89	1.77	5.90	0.92	3.42	1.19	5.33	1.30	3.86	2.04	6.20	1.03	5.63	1.08
의지가 강한	5.01	1.86	4.55	1.39	5.20	1.23	5.45	1.36	3.35	1.82	5.37	1.59	4.06	1.48
적극적인	5.17	2.04	5.10	1.33	6.18	0.74	5.41	1.14	5.81	1.14	5.55	1.57	4.71	1.35
영리한	4.82	1.77	5.21	1.03	6.38	0.71	5.86	0.98	6.47	0.79	6.00	0.96	5.07	0.90
협동적인	4.81	2.25	5.94	0.90	6.24	0.74	4.26	1.35	6.44	0.77	6.08	1.00	6.13	0.80
감정적인	3.72	1.57	3.82	1.11	3.18	1.47	3.59	1.41	4.62	1.65	4.03	1.30	3.46	1.10
호기심있는	4.66	1.80	5.98	0.80	6.50	0.86	5.68	1.03	5.76	1.41	6.18	0.94	5.80	0.94
기억력이 좋은	4.88	1.74	5.80	0.79	6.28	0.70	6.34	0.76	6.37	0.78	6.19	0.91	6.08	0.81
모험심이 강한	4.16	1.60	5.63	0.88	5.91	0.88	5.89	1.01	6.24	0.92	5.95	1.09	5.52	0.96
책임감이 강한	4.90	2.11	5.88	0.88	6.33	0.77	5.77	1.05	6.50	0.73	5.86	0.94	6.26	0.70
개방적인	4.17	1.60	5.37	1.09	5.96	0.82	5.00	1.09	5.91	0.91	5.55	1.15	5.10	1.09
상냥한	4.35	1.67	4.01	0.73	4.82	1.00	4.33	0.91	5.11	1.18	4.47	1.00	4.42	0.79
자신감	5.03	2.14	6.22	0.77	6.62	0.57	5.88	1.10	6.28	0.89	5.55	1.38	6.13	0.85
충동적인	3.13	1.45	3.55	0.87	2.86	1.30	3.59	1.15	2.76	1.96	3.76	1.39	2.93	1.19
지도력	5.07	2.00	4.61	0.86	4.42	1.25	4.49	1.12	4.10	1.77	4.48	1.30	5.27	1.08
고집이 있는	3.87	1.38	5.86	0.94	5.95	0.99	5.30	1.29	6.07	1.25	5.58	1.25	5.83	0.97
민감한	3.66	1.39	4.60	1.28	4.73	1.59	3.85	1.11	4.25	1.74	3.66	1.32	4.54	1.21
예의바른	4.62	2.12	5.61	1.11	5.85	0.84	4.85	1.08	5.90	0.99	4.93	1.00	5.58	0.92
정직한	4.56	2.21	6.04	1.00	5.94	1.11	5.63	1.17	6.10	1.08	5.69	1.23	6.03	0.81
순종적인	3.99	1.42	5.53	0.92	5.28	1.09	4.95	1.13	6.10	0.97	4.93	1.26	5.50	1.15
용감한	4.36	1.68	4.90	0.83	4.93	1.01	4.60	0.97	5.01	1.40	4.78	1.27	4.64	0.99
발명의 재능이 있는	4.63	1.68	5.51	0.98	6.33	0.72	5.56	0.99	6.02	0.85	5.56	1.04	5.22	1.02
운동을 잘하는	4.64	1.65	4.67	0.82	4.59	0.99	4.71	1.08	5.33	1.05	4.64	0.99	4.72	0.88
수줍은	3.56	1.28	2.94	1.09	2.75	1.03	3.05	1.00	2.15	1.35	2.80	1.08	3.00	1.03
적응적인	4.36	1.83	5.88	0.88	5.52	1.01	5.30	0.95	5.95	1.05	5.52	1.18	5.83	0.88
격렬한	3.28	1.44	3.59	1.14	4.49	1.06	4.18	1.12	4.30	1.61	3.76	1.36	3.99	1.28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4.88	2.19	4.98	1.19	3.89	1.08	5.31	1.11	5.35	1.07	4.62	1.00	5.20	0.89
산만한	3.04	1.72	2.22	1.12	2.18	1.01	2.39	0.99	2.41	1.10	2.61	1.06	1.97	0.88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4.71	1.90	6.08	0.89	6.01	1.00	5.69	0.96	6.14	0.86	5.81	0.99	5.81	0.92

2. 연구문제 2) 한국과 서구 6개국(호주, 이태리,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아동의 특성들에 대한 부모 신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패턴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에 중요하다고 믿는 아동의 특성 41문항에 대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였다. Eigenvalue=1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였으며, 직각회전 방식 중 Varimax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3>. 우리나라에서의 요인구조를 서구 5개국(호주의 경우 수집된 자료가 N=49 여서 요인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서의 요인구조<표 4, 표 5, 표 6, 표 7, 표 8, 표 9>와

〈표 3〉 한국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41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I	II	III	IV
I .인지적 특성				
집중을 잘하는	.84			
이해를 잘하는	.82			
기억력이 좋은	.79			
주의를 기울이는	.78			
침착한	.77			
적극적인	.75			
영리한	.74			
의지가 강한	.74			
말을 잘하는	.66			
신중한	.64			
발명의 재능이 있는	.62			
호기심 있는	.61			
자신감 있는	.56			
독립적인	.55			
모험심이 강한	.48			
조용한	.38			
II. 사회적 요청(의무)				
정직한		.80		
예의바른		.80		
규칙적 습관		.77		
협동적		.69		
책임감		.68		
용기있는		.64		
운동을 잘하는		.60		
적응적인		.59		
지도력		.58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		.56		
상냥한		.56		
겸손한		.51		
순종적인		.51		
개방적인		.44		
III. 부정적 기질				
충동적인			.84	
산만한			.81	
격렬한			.76	
민감한			.71	
수줍은			.70	
고집있는			.65	
감정적인			.63	
IV.사회적 특성				
사교적인				.71
배려하는				.67
열정적인				.66
행복한				.61
Percent of Variance	25.56	19.64	10.82	9.88
Percent of Covariance	36.01	27.69	15.26	13.93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표 4〉 이태리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41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I	II	III	IV	V	VI
I 사회적 요청(의무)						
예의바른	.62					
신중한	.61					
용감한	.53					
정직한	.53					
상냥한	.53			(.50)		
겸손한	.51					
순종적인	.47					
책임감이 강한	.43				(.39)	
운동을 잘하는	.37					
조용한	.35					
적응적인	[.32]					
II.부정적 기질						
충동적인		.72				
감정적인		.66				
수줍은		.62				
산만한		.60				
말을 잘하는		.60				
민감한		.43				
III. 사회적 특성						
개방적인			.56			
발명의 재능이 있는			.52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49			
행복한	(.34)		.46			
협동적인			.42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40)		.41			
자신감			.41			
독립적인			.38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36			
IV.자기주장						
지도력					.56	
모험심이 강한					.52	
열정적인					.51	
의지가 강한					.45	
사교적인	(.38)		(.34)		.40	
침착한					.39	
적극적인				[.26]		
V.인지적 특성						
빨리 이해하는					.61	
기억력이 좋은					.53	
격렬한					.53	
주의를 기울이는					.45	
영리한					.44	
VI. 관여(Engagement)						
호기심있는						.56
잘 집중하는						.40
고집이 있는						.34
Percent of Variance	9.04	6.90	6.70	6.09	5.32	3.35
Percent of Covariance	24.18	18.44	17.92	16.27	14.23	8.96

〈표 5〉 네델란드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41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I	II	III	IV	V	VI
I.부정적 기질						
수줍은	.73					
산만한	.73					
신중한	.66					
감정적인	.63					
민감한	.63					
상냥한	.62					
충동적인	.51				(.40)	
격렬한	.48					
겸손한	.44		(.35)			
협동적인	.36					
II. 인지적 특성						
주의를 기울이는		.73				
잘 집중하는		.63				
빨리 이해하는		.62				
영리한		.58				
기억력이 좋은		.57		(.36)		
자신감		.43				(.34)
침착한		.41				
III. 사회적 특성						
사교적인			.71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70			(.35)
독립적인	(.37)		.46			
개방적인			.38			
책임감이 강한	(.36)		.37			
말을 잘하는			.35			
IV. 자기주장						
모험심이 강한				.68		
행복한			(.38)	.54		
의지가 강한				.51	(.35)	
열정적인			(.36)	.49		
적극적인				.47		
호기심있는		(.37)		.46		
적응적인				.40	(.37)	
V. 개방성						
용감한					.60	
지도력					.54	
고집이 있는					.52	
발명의 재능이 있는					.51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45	
조용한					.38	
운동을 잘하는					[.31]	
VI. 사회적 요청(의무)						
순종적인						.67
예의바른						.64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58
정직한			(.41)			.57
Percent of Variance	10.52	8.19	6.96	6.63	6.46	6.38
Percent of Covariance	23.30	18.15	15.42	14.69	14.31	14.12

〈표 6〉 스페인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41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I	II	III	IV	V	VI
I .사회적 요청(의무)						
정직한	.67					
모험심이 강한	.67					
예의바른	.65				(.36)	
자신감	.62					
상냥한	.60					
영리한	.59					
책임감이 강한	.59					
기억력이 좋은	.57	(.39)				
순종적인	.56					
개방적인	.56					
적응적인	.51		(.42)			
적극적인	.50					
II. 인지적 특성						
빨리 이해하는		.70				
주의를 기울이는		.66				
잘 집중하는	(.37)	.50				
호기심있는		.48		(.41)		
신중한		.46		(.39)		
고집이 있는		.45				
행복한		.41				
지도력		.34				
III. 부정적 기질						
감정적인			.57			
수줍은			.52			
협동적인	(.34)		.46			
격렬한			.45			
충동적인			.45			
산만한			.43	(.38)		
운동을 잘하는			.40			
민감한			.37			
겸손한			[.33]			
말을 잘하는			[.32]			
침착한			[.19]			
IV. 개방성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58		
발명의 재능이 있는				.52		
독립적인				.42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38		
조용한				.34		
V. 사회적 특성						
사교적인					.57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44)		.55	
열정적인		(.42)			.50	
VI. 자기주장						
용감한						.58
의지가 강한						.56
Percent of Variance	12.66	7.86	7.11	5.61	4.22	3.36
Percent of Covariance	31.01	19.25	17.43	13.75	10.33	8.24

〈표 7〉 스웨덴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41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I	II	III	IV	V	VI
I .자기주장						
호기심있는	.79					
말을 잘하는	.76					
모험심이 강한	.75					
자신감	.67					
의지가 강한	.66					
적극적인	.65					
발명의 재능이 있는	.62					
독립적인	.61		(.35)			
용감한	.59					
지도력	.59					
충동적인	.58				(.42)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53					
고집이 있는	.47					
II. 사회적 특성						
개방적인		.71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70				
사교적인		.64				
협동적인		.54				
상냥한		.49		(.35)		
책임감이 강한	(.34)	.47		(.36)		
열정적인	(.40)	.41				(.34)
III. 인지적 특성						
주의를 기울이는			.64			
기억력이 좋은	(.37)		.64			
빨리 이해하는			.58			(-.38)
조용한			.57			
침착한			.47			
잘 집중하는			.47			
IV. 사회적 요청(의무)						
적응적인				.76		
순종적인				.73		
예의바른				.70		
정직한		(.40)		.44		
운동을 잘하는				.36		
V. 부정적 기질						
수줍은					.76	
산만한					.61	
민감한					.56	(.37)
격렬한	(.44)				.53	
신중한					.52	
겸손한					.48	
감정적인	(.38)				.41	
VI. 편안한 성격특성(Easy Going Quality)						
행복한						.45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44
영리한	(.44)		(.36)			-.47
Percent of Variance	16.59	7.98	7.53	6.89	6.82	4.53
Percent of Covariance	32.96	15.85	14.97	13.68	13.55	9.00

〈표 8〉 미국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관련된 41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I	II	III	IV	V	VI
I. 자기주장						
사교적인	.61					
개방적인	.61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59			(.50)		
모험심이 강한	.51				(.35)	
지도력	.49					
겸손한	.47			(.44)		
용감한	.46	(.37)				
운동을 잘하는	.45					
민감한	.42	(.36)				
II. 사회적 특성						
적극적인		.67				
충동적인		.64				
의지가 강한		.62				
신중한		.61				
격렬한		.61				
산만한		.50		(.34)		
감정적인		.50				
수줍은		.44				
III. 인지적 특성						
잘 집중하는			.75			
주의를 기울이는			.72			
빨리 이해하는			.63			
행복한			.56	(.34)		
열정적인	(.34)		.50			
독립적인	(.40)	(.40)	.47			
협동적인			.46	(.45)		
IV. 사회적 요청(의무)						
예의바른				.68		
침착한				.59		
상냥한				.51		
순종적인				.47		
조용한			(.41)	.47		
정직한	(.41)			.47		(.35)
V. 부정적 기질						
호기심있는					.70	
영리한					.65	
고집이 있는					.65	
기억력이 좋은					.53	
발명의 재능이 있는					.47	
말을 잘하는					.47	
VI. 편안한 성격특성(Easy Going Quality)						
적응적인						.72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63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56
자신감	(.42)					.53
책임감이 강한						.46
Percent of Variance	9.15	9.00	8.42	8.02	7.20	7.05
Percent of Covariance	18.73	18.42	17.24	16.42	14.75	14.44

<표 3>,<표 4>,<표 5>,<표 6>,<표 7>,<표 8>에 제시되었듯이 서구국가들에서는 41개 문항에 대하여 모두 6개 요인으로 묶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4 개 요인만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4 개 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별로 구성된 문항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요인들을 명칭화하면, 인지적 특성, 사회적 요청(의무), 부정적 기질과 사회적 특성으로 명칭화 할 수 있어 서구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4개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지적 특성요인은 자녀의 학교성공에 대한 부모신념을 36.01% 설명하였으며, 의무요인은 27.69%, 부정적 기질요인은 15.26%, 사회적 특성요인은 13.93%를 각각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 개 국가에서 나타난 부모신념의 요인구조들을 정리한 표<표 9>를 보면 서구국가들은 모두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지만 구성요인이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서구국가들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은 인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 사회적 요청(의무)과 부정적 기질이다.

또한,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따라서 포함되는 문항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문화에 따라서 인지나 사회적 특성 등에 대한 개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적 특성요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해를 잘 한다", "주의를 기울이는", "집중을 잘 하는" 등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사회적 특성요인도 "사교적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등의 문항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부정적 기질요인은 "수줍은", "감정적인", "충동적인", "민감한" 등의 문항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의무요인은 "예의바른", "순종적인", "정직한" 등의 문항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했다.

〈표 9〉 7개 국가에 대한 요인 유형의 정리

Factor	Korea (n=241)	Italy (n=119)	Netherlands (n=111)	Spain (n=113)	Sweden (n=83)	U.S.A. (n=100)
인지적 특성	factor1 집중을 잘하는 이해를 잘하는 기억력이 좋은 주의를 기울이는 침착한 적극적인 영리한 의지가 강한 말을 잘하는 신중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호기심 있는 자신감 있는 독립적인 모험심이 강한 조용한	Factor5 빨리 이해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잘 집중하는) 기억력이 좋은 격렬한 영리한	Factor2 빨리 이해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잘 집중하는 기억력이 좋은 영리한 자신감 침착한 (독립적인) (호기심있는) (책임감이 강한)	Factor2 빨리 이해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잘 집중하는 호기심있는 신중한 고집이 있는 행복한 지도력 (열정적인) (기억력이 좋은)	Factor3 빨리 이해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잘 집중하는 기억력이 좋은 조용한 침착한 (영리한) (독립적인)	Factor3 빨리 이해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잘 집중하는 행복한 열정적인 독립적인 협동적인 (조용한)
사회적 특성	factor4 정직한 예의바른 규칙적 습관 협동적 책임감 용기있는 운동을 잘하는 적응적인 지도력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 상냥한 겸손한 순종적인 개방적인	Factor3 (사교적인)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개방적인 발명의 재능이 있는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 행복한 협동적인 자신감 독립적인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정직한)	Factor3 사교적인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개방적인 독립적인 책임감이 강한 말을 잘 하는 (정직한) (행복한) (열정적인) (겸손한)	Factor5 사교적인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열정적인 (예의바른)	Factor2 사교적인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개방적인 협동적인 상냥한 책임감이 강한 열정적인 (행복한) (정직한)	Factor1 사교적인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개방적인 모험심이 강한 지도력 겸손한 용감한 운동을 잘하는 민감한 (자신감) (정직한) (독립적인) (열정적인)

〈표 9〉 - 계속

	factor3 충동적인 산만한 격렬한 민감한 부정적 기질	Factor2 수줍은 산만한 감정적인 충동적인 수줍은 고집있는 감정적인	Factor1 수줍은 산만한 감정적인 충동적인 민감한 말을 잘 하는	Factor3 수줍은 산만한 감정적인 충동적인 민감한 격렬한 신중한 상냥한 겸손한 협동적인	Factor5 수줍은 산만한 감정적인 (충동적인) 민감한 격렬한 신중한 겸손한	Factor2 수줍은 산만한 감정적인 충동적인 (민감한) 격렬한 신중한 적극적인 의지가 강한 (독립적인) (용감한)
사회적 요청 (의무)	factor2 사교적인 다른사람에게 관심 있는) 열정적인 행복한	Factor1 예의바른 자신감 정직한 신중한 용감한 상냥한 겸손한 책임감이 강한 운동을 잘하는 조용한 (다른사람에게 관심 이 있는) (사교적인) (행복한)	Factor6 예의바른 자신감 정직한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다른사람에게 관심 이 있는) (자신감)	Factor1 예의바른 자신감 정직한 모험심이 강한 자신감 상냥한 영리한 책임감이 강한 기억력이 좋은 개방적인 적응적인 적극적인 (잘 집중하는) (협동적인)	Factor4 예의바른 자신감 정직한 적응적인 (책임감이 강한) (상냥한)	Factor4 예의바른 자신감 정직한 침착한 상냥한 조용한 (다른사람에게 관심 이 있는) (협동적인) (겸손한) (산만한) (행복한)
자기주장		Factor4 지도력 모험심이 강한 열정적인 의지가 강한 사교적인 침착한 (책임감이 강한)	Factor4 모험심이 강한 행복한 의지가 강한 열정적인 적극적인 호기심있는 적응적인 (기억력이 좋은)	Factor6 용감한 의지가 강한	Factor1 호기심있는 말을 잘 하는 모험심이 강한 자신감 의지가 강한 적극적인 발명의 재능이 있는 독립적인 용감한 지도력 충동적인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 고집이 있는 (격렬한) (영리한) (열정적인) (감정적인) (기억력이 좋은) (책임감이 강한)	

〈표 9〉 - 계속

관여 (engagement)	Factor6 호기심있는 잘 집중하는 고집이 있는			Factor5 호기심있는 영리한 고집이 있는 기억력이 좋은 발명의 재능이 있는 말을 잘 하는 (적응적인) (모험심이 강한)
개방성	Factor5 용감한 지도력 고집이 있는 발명의 재능이 있는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조용한 (격렬한) (적응적인) (의지가 강한)	Factor4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 발명의 재능이 있는 독립적인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조용한 (호기심있는) (신중한) (DISTRACTIVEL)		Factor6 적응적인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 자신감 (책임감이 강한) (정직한)
편안한 성격특성 (Easy-going Quality)			Factor6 행복한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영리한(-) (빨리 이해하는)(-) (민감한) (열정적인)	

모든 국가의 4개 공통 요인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와 같이 서구국가의 부모들은 인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 사회적 요청(의무)등이 아동의 학교생활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대부분 6점 이상)고 생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부분 약간 평균을 웃도는 정도의 점수(4점 이상)를 보여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부정적 기질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의 문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였다

Ⅳ. 논의

이 연구의 주 목적은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을 위한 아동의 특성에 대한 부모신념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다른 서구국가들의 부모신념과 비교해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아동의 특성들로 잘 집중하는, 의지가 강한, 적극적인, 자신감, 지도력 등의 특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아동의 특성을 묘사

〈표 10〉 4개 공통요인에 대한 7 개국의 평균 비교

요인	Mean						
	Korea (n=284)	Australia (n=49)	Italy (n=120)	Netherlands (n=134)	Spain (n=125)	Sweden (n=108)	U.S.A. (n=120)
인지적 특성	4.72	6.43	6.56	6.28	6.64	6.43	6.24
사회적 특성	4.48	6.28	6.01	5.31	6.18	5.63	5.47
사회적 요청(의무)	4.50	6.15	5.69	5.13	6.03	5.14	5.70
부정적 기질	3.45	3.63	3.13	3.29	3.25	3.40	3.18

하는 41개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인지적 특성, 사회적 요청(의무), 부정적 기질, 사회적 특성 등 4개 요인으로 분류했을 때, 잘 집중하는, 의지가 강한, 적극적인, 자신감 등은 인지적 특성에 속하고, 지도력은 사회적 요청(의무)에 속해,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인지적 특성을 많이 지녀야 학교생활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요인분석시 인지적 특성이 전체변량의 36.01%를 설명하여 다른 요인들 보다 설명량이 많았다.

서구국가들과의 비교연구(Feng, 1999)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지적 특성, 사회적 요청(의무), 부정적 기질, 사회적 특성 등의 4가지 영역의 아동특성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의 성공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서구국가들의 경우에는 이태리의 경우 사회적 요청(의무)요인이, 네델란드는 부정적 기질요인이 스페인은 사회적 요청(의무)요인이, 스웨덴은 자기주장 요인이, 미국은 사회적 특성요인이 각각 전체변량의 24.18%, 23.30%, 31.01%, 32.96%, 18.73% 를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는 아동의 특성 중 인지적 특성이, 이태리와 스페인의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요청(의무)특성이, 네델란드 부모는 아동의 부정적 기질특성이, 스웨덴 부모는 아동의 자기주장 특성이, 미국의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특성 요인이 각각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국가에서 모두 아동의 인지적 특성, 사회적 요청(의무), 부정적 기질, 사회적 특성 등의 4개 영역 요인들이 아동의 학교생활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부모신념은 유사하지만, 각 나라마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내용은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즉, 예를 들면 인지개념에 대하여 스웨덴의 부모들은 빨리 이해하고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아동은 조용하고 침착한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특성은 행복함과 열정적인 것과 같은 동기와 매우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을 위한 아동특성에 대한 부모신념의 문화적 비교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구 국가들 간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육 개국 사이에 부모신념이 유사성을 보인 가운데 지역적으로 가까운 국가들 간 에 예를 들면 이태리와 스페인, 네델란드와 스웨덴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강한 부모신념의 유사성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 부모의 자녀의 학교생활 성공에 대한 신념을 조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먼저, 연구대상이 한 학교에서 수집되어 결과를 한국 부모의 부모신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둘째, 스웨덴을 제외한 서구자료의 요인분석에서 설명량이 50%를 넘지 못하여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가지며, 결과의 비교 문화적 해석에 제한점을 갖는다. 셋째, 우리나라 부모의 신념을 서구국가들과 비교하였으나, 국가 내에서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즉 사회계층이나 부-모, 그리고 부모와 교사 별로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신념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부모신념, 아동의 학교생활 성공, 문화비교

참 고 문 헌

Chao, R (1996)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beliefs about the role of parenting in children's school succ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403-423.

Chen, C, Uttal, DH (1988) Cultural values,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achie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uman Development, 31*, 351-358.

Chess, S, Thomas, A (1996) Temperam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urnner/Mazel. D'Andrade, R. G (1992). Schemas and motivation. In R. G. D'Andrade & C. Strauss (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pp. 23-4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eng, Xin (1999) Parental Beliefs about School Success in six western communiti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onnecticut at Storrs.

Harwood, RL, Miller, JG, Irizarry, NL (1995) *Culture and attachment: Perceptions of the child in context*. New York: Guilford.

Hess, RD, Chang, C, McDevitt, TM (1987) Cultural variations in family beliefs about children's performance in mathematics: Comparisons am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American and Causasi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179-188.

Hoffman, LW (198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goals*. In R. A. LeVine, P. M. Miller, & M. M. West (Eds.),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pp. 99-122). In W. Damon (Series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 44, Summer). Sam Francisco: Jossey bass.

LeVine, RA (1988) *Human parental care: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n R. A. LeVine, P. M. Miller, & M. M. West (Eds.),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pp. 99-122). In W. Damon (Series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 44, Summer). San Francisco: Jossey bass.

McGilliduddy-De Lisi, A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cGillicuddy-De Lisi, AV, Subramanian, S (1994) Tanzanian and United States mothers' beliefs about parents' and teachers' roles in children's knowled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 209-237.

Okagaki, L, Sternberg, R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Pomerleau, A, Malcuit, G, Sabatier, C (1991)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al beliefs in three cultural groups on Montreal: Quebecois, Vietnamese,* Haitian. In M H. Bornstein (Ed.).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pp. 45-68). Hillsdale, NJ: Erlbaum.

Super, CM, Harkness, S (1986) The developmental niche: A conceptualization at the interface of child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545-569.

Stevenson, HW, Lee, S (1990) Contest of achieve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5* (1-2, Serial No. 221).

(2005. 08. 02 접수; 2005. 10. 15 채택)